

Living the Lotus 2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6
VOL. 245



12월 12일, 모리 방글라데쉬 교회장님 (2023년부터 현직)이 퇴임하고, 새로이 아가가와 케이치 교회장님(전 국제전도부장)이 취임.

입정교성회 방글라데쉬 교회에서 거행된 교회장 취·퇴임식
감사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다

Living the Lotus
Vol. 245 (February 2026)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미디어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mailto: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가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김은미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코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범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 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범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범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미야자와 겐지에게 배운다 ②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다면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



지용보살(地涌菩薩)처럼

「비에도 지지 않고」로 시작하는 미야자와 겐지의 시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읽다 보면 마치 경문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제가 지난 1월호 법화에서 말씀드린 그 전문(全文)을, 알기 쉬운 현대적인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바람에도 지지 않고／눈에도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않는／튼튼한 몸을 가지고／욕심도 없고／결코 성내지 않으며／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다／하루에 현미 네 홉과／된장과 조금의 채소를 먹고／모든 일에／자신의 잇속을 챙기지 않고／잘 보고 듣고 이해하며／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들판의 소나무 숲 그들의／작은 초가지붕의 오두막에 살며／동쪽에 병든 아이가 있으면／가서 돌봐 주고／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으면／가서 벋단을 지어 날라 주며／남쪽에 죽어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가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고／북쪽에 다툼이나 송사가 있으면／시시하니 그만두라고 말해주며／가뭄일 때에는 눈물을 흘리고／쌀쌀한 여름에는 허둥지둥 돌아다니며／모두에게 명칭이라고 불리고／칭찬 받지도 않으며／괴롭힘도 당하지 않는／그런 사람이／나는 되고 싶다」

신앙에 근거한 겐지의 결의가 솔직하게 쓰여 있어서 저로서는 그저 ‘대단하다’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압도되는 점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서’라는 구절입니다.

아픈 아이 곁으로 달려가고, 농사일로 지친 여성을 위로하며,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진실을 설하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을 달래어 조화와 화합을 촉구한다는 구체적인 실천의 맹세입니다.

사람의 괴로움이나 마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여하튼 그곳으로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그것이 현실의 사바세계에서 보살로서 살아가는 자의 사명이라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 시 다음에 수첩에는 제목(題目:나무묘법연화경)을 중심으로 양 옆에 다보여래와 석가모니불을 두고, 그 바깥쪽에 상행·무변행·정행·안립행의 사대보살을 배치한 법화경 만다라가

재차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대보살은 부처님의 바람을 몸소 실천하여 중생을 실제로 고통에서 구제하는 지용보살의 리더이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타인에게 다가가는 이 자세에, 지금 우리들이 배우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고 듣고 이해하며」

그리고 이 시에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지 않고/ 잘 보고 듣고 이해하며’의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본 회의 지부장님이나 주임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평소 당연한 일처럼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불성을 믿으며, 오직 고뇌의 호소나 탄식에 귀를 기울인다—이는 상대방이 괴로움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출구로 향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고귀한 보살행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자애(慈愛)에 휩싸인 속에서 푸념이나 불평이나 한탄의 감정을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에 생각이 미침으로써, 마침내 마음이 가벼워져 고통(苦境)의 출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내전(內戰)으로 인한 민족 간의 대립이 남아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현지의 주요 종교 지도자분들과 만났을 때도, 겐지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는 그저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는데, 대화조차 어려웠던 지도자들 사이에 이윽고 조금씩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것은 각자가 속마음을 토로하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든 신불(神仏)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짜워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깨달음을 각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고뇌하는 사람은 많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 주고 싶다고 생각해도 그야말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멍청이와도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큰 시점(視點)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합장예배의 마음으로 마주하면서 다정하고 따뜻하게—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하루하루의 실천이, 세계의 문제로 이어지는 근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을 소홀히 보내지 않았으면 하고 겐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성』 2026년2월호)



상대의 불성을 일으킬 수 있는 연(緣)으로

인도 · 콜카타 지부 오누푸 · 보루아

입정교성회 가르침과 만난 것은 언제,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제가 입정교성회 콜카타 지부에 입회한 것은 2017년 10월로, 어느 날 밤 신기한 꿈을 본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 꿈 속에서 일본인 같은 승려가 ‘앞으로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립시다’ 하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상좌부 불교를 신앙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난 저는, 지금까지 명상과 계율을 지키는 수행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꿈 속에서 저는 ‘어떻게 포교를 하면 좋을지 저는 모릅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승려는 ‘괜찮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다 똑 같은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며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기도 했고, 이전부터 대승불교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인도 국내에서 대승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서벵골 주의 수도 콜카타에 입정교성회라는 이름을 가진 불교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도 동부 최대의 도시 콜카타와 제가 사는 온다르는 같은 주였습니다만 거리로 따지면 실로 약 200키로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카타의 친척을 통해 입정교성회 콜카타 도량의 책임자인 슈몬 보루아 지부장님의 집 전화번호를 찾아달라고 부탁해서, 그 후 슈몬 지부장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콜카타 도량을 처음 방문한 날, 어떤 인상을 받았나요?

도량을 찾아가 제가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장엄한 법당에 안치된 본존님, 그리고 오모리모노(과일과 야채)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는 것이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고 감동했습니다. 그 후, 슈몬 지부장님으로부터 법당에 급사하는 방법, 대승경전인 법화경을 공양한다는 것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처음 참석한 법좌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고민을



아누푸 · 보루아

정말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리더인 법좌주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연을 닿아주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법화경 가르침을 서로가 함께 배우고 깊은 신뢰관계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도 법화경 가르침을 배워서 매일 생활 속에 살려서 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고 결의하며 입정교성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대성당에서 교사자격을 수여받았는데, 현재의 심경은 어떻게요?

교사 자격을 배수받은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린다’ 는 꿈의 내용이 현실이 된 지금,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신 인도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사 역할을 받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교 발상의 나라라고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지혜와 자비, 평등과 같은 진정한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법화경을 깊이 배우고 매일매일 실천을 통해 가르침을 몸에 익



신입회원 여러분과 함께 (오른쪽 끝 : 아누푸 · 보루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정교성회 가르침을 배우고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이전에 개조님 저서 ‘보이지 않는 눈썹’을 읽고, 간소한 생활을 통해 마음의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조님은 ‘포대화상(布袋和尚)의 주머니 속 물건’이라는 페이지에서 「그 주머니 속에는 먹다 남은 식사가 종류별로 나누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 절약을 가르쳐주는 화상님인 것입니다. (중략) 음식을 비롯해 우리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 도구 등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충분히 살려서 그 가치를 완전하게 발휘했을 때, 그것을 대승적인 의미로 ‘성불’이라고 합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저게 갖고 싶다, 이게 갖고 싶다’하는 필요 이상의 욕망을 삼가하며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절약하는 간소한 생활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자원으로 재이용하고, 집에서는 야채나 과일 등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만들어 식물을 키우는데 쓰거나 그것을 농가에 퇴비로서 나눠 드리면 아주 감사하게 받아주십니다.

법화경에서 감동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상불경보살품제20입니다. 저는 이 품에서 상불경보살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합장하며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하는 철저한 불성 배례행에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불경보살의 배례행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라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돌을 던지거나 또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상불경보살은 바뀌지 않은 신념을 계속해서 관철하며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설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당신들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하며 계속해서 모든 사람의 불성을 배례한 이 상불경보살의 인내와 자비의 실천은 대승불교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상불경보살의 정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부하에 대해서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결점이 아니라 장점과 가능성으로 눈을 돌릴 것.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초월해서 대화를 통한 평화와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 - 이 모든 사람들의 불성을 믿고, 존중하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며 법화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불경보살을 본받아 ‘당신은 훌륭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앞으로 만나게 될 상대방의 불성을 일으킬 수 있는 연이 되



회원 집에서 독경공양을 하는 아누푸 · 보루아)

Interview

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수행 목표, 그리고 장래 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사는 온다루에서 앞으로 법화경과 입정교성회 가르침을 열심히 포교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입회 되도록 한 분이 가르침을 잘 배워서 교사 자격을 수여받고 본 존님을 권칭 받아서 리더로서 활약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가르침이 더욱더 널리

알려져 새로운 포교 거점으로 온다루에 도량이 건설되는 것이 저의 큰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법화경의 가르침에 의해 모두 함께 행복해집시다’고 힘차게 전하고 싶습니다.



2025년10월26일, 교사수여식 후, 수여자를 비롯한 국제전도 관계자와 함께 (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 : 아누푸 · 보루아님)



사람을 육성하는 기쁨

날개로 감싸 안듯이

입정교성회 니와노 닛쿄(庭野日敬)



‘육성한다(보살피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날개로 감싸다’였다고 합니다. 부모새는 전신의 날개로 알을 감싸서 따뜻하게 합니다. 그렇게 부화한 병아리를 날개로 감싸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면서 키웁니다. 이 부분에서, 소중하게 소중하게 키운다는 것을 ‘육성하다(보살피다)’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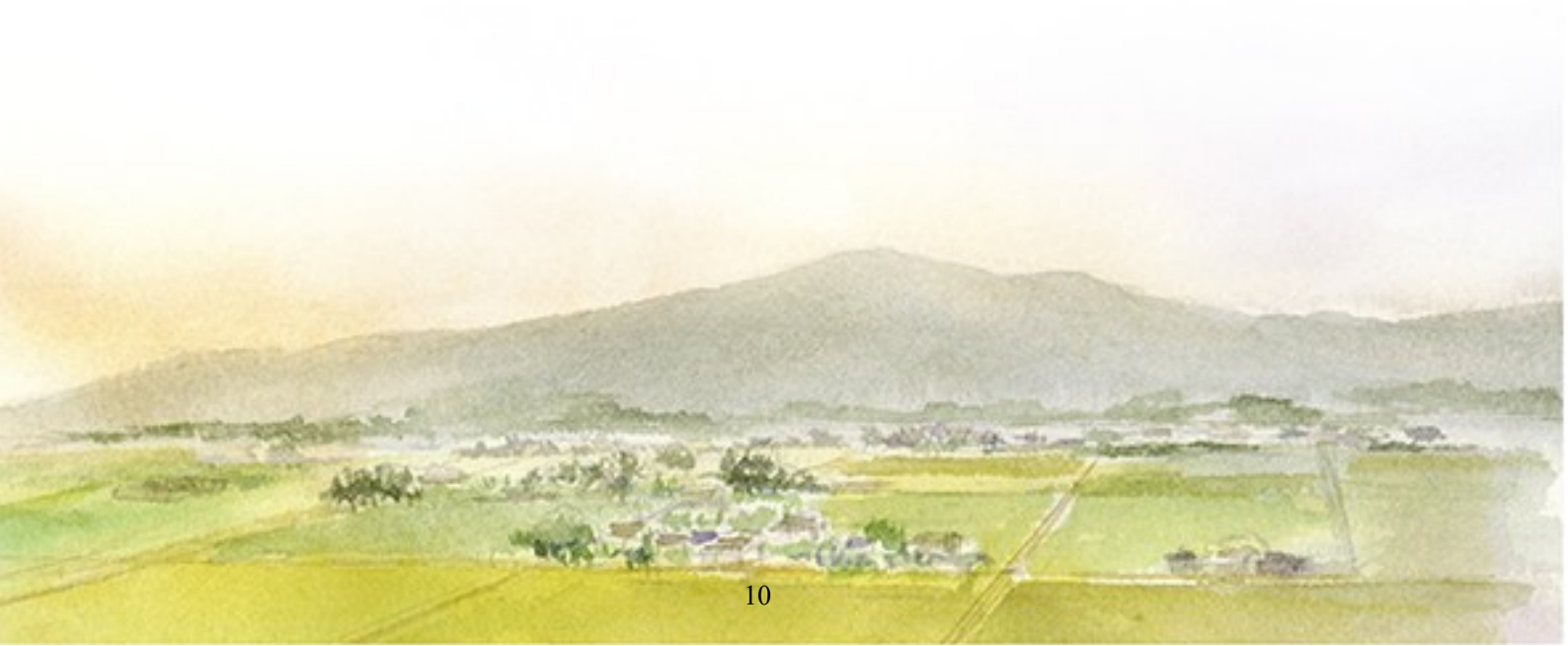
할아버지께서 당신이 입고 계시던 누비옷 속에 저를 넣어 포옥 감싸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하며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저를 감싸서 키워 주셨던 것입니다. 똑 같은 것을 배운다고 해도 억지로 다다미 위에 정좌를 하게 해서 엄격한 어조로 들어서는, 이 정도로 마음에 스며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키운다’ 와 ‘(마음과 관계, 가치)육성하다’의 차이입니다.



보리의 싹을 틔움이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육성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의 아버지와 같이 올바른 방식을
술선해서 실행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는 사람도 따라 배우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니와노넛교 혜세 범화선집1 『보리의 싹을 틔움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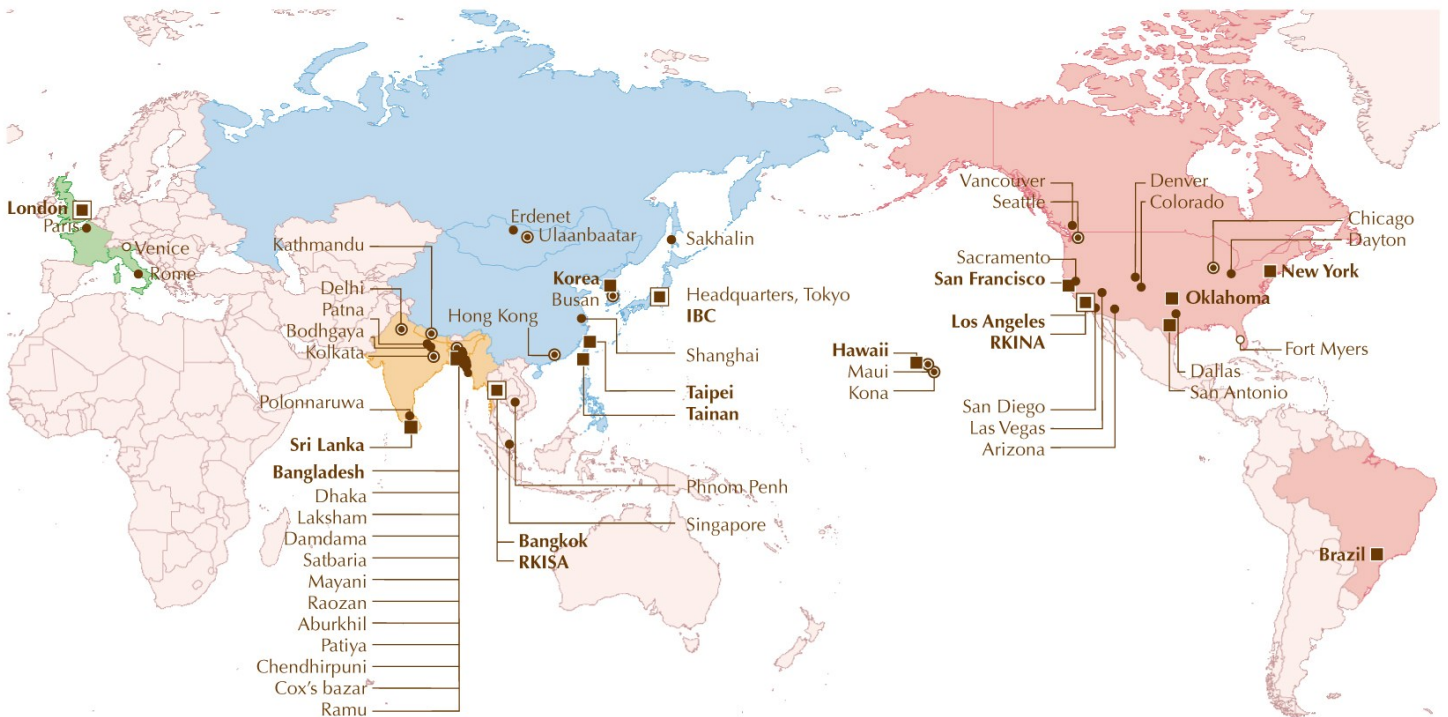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